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6>

생사를 빠져나올 수 있는가?

법당에서 대중에게 설법했다. “불경을 읽는 것도 생사 속에 있는 것이고, 경을 읽지 않는 것도 생사 속에 있는 것이다. 자, 그대들은 어떻게 하여 생사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어떤 학승이 즉각 말했다. “다만 그 어느 쪽에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진실하다면 좋겠지만, 만일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사를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上堂云 看經也在生死裡 不看經也在生死裡 諸人且作麼生出得去 僧便問 只如俱不宿時如何 師云 實即得 若不實即得生死

깊고 깊은 경지로 말한다면 불경을 읽는 것도, 참선을 하는 것도, 중생을 제도해 복을 짓는 것도 모두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불경을 읽지 않고 참선도 하지 않는 이것은 더더욱 생사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학인은 어느 쪽에서도 머물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양자 속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양자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진실로 가능한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비현실적인 대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조주 스님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 남자들은 한 번 생사를 벗어나는 견해를 밝혀보길 바란다. 한 생각 떠오르는 기막힌 대답이 있으면 즉시 선사를 찾아가서 점검하길 바란다. 이 남자에게 묻는다면 즉시 어떤 한 행동을 해서 벗어나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기술하도록 하겠으나, 조주 스님의 질문을 평한다면 “조주 스님의 그 둘은 총총해서 여간하여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예리한 칼날 끝이 잘 들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야말로 예리한 칼이지만 잘 듣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問 利劍快時如何 師云 老僧是利劍 快在什麼處

칼이 잘 들을 때는 마음이 잘 조정될 때에 비유

한 것이다. 마음이 흰 소처럼 잘 길들여져서 화나는 일이 닦쳐와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시비를 걸어도 무덤덤하고, 물질을 보아도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미움, 시기, 근심, 우울함도 없는 참으로 막힘이 없고 자유로운 경계이다.

잘 드는 칼은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함에 적합한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선사의 활이나 어떤 비유, 그리고 선적인 행동은 도에 대해 완전히 사무쳐 있지 않으면 절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선사들은 대개 하고 싶은 대로 중생의 마음을 능수능란하게 요리하므로 ‘잘 드는 칼(利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조주 스님은 스스로를 잘 드는 칼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평생 마음을 다스려온 노승이라, 이제는 어떤 일에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뿐더러, 중생의 마음을 요리하는 것에도 전문가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그렇지만 내 곁이 잘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잘 드는 것인지, 나의 법문과 선적 지시가 중생에게 유용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에 마음이 동요된다면 아직도 진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선지식이라면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바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능숙한 경지에 대해서도 절대 자랑이 없어야 한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보아도 무엇이 다가 와도 마음이 기울 하늘처럼 청명하고 맑아야 하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큰 난리가 닥쳐온다면 어떻게 회피해야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마침 잘 됐어.”

問 大難到來如何回避 師云 恰好

홀호(恰好)는 ‘마침 잘 됐어’ ‘음, 좋아’ ‘맞아 맞아, 맞는 말이야’ 등의 의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서는 ‘마침 잘 됐어!’ 라는 뜻으로 본다. 이것은 조주 스님의 선적 그릇(禪器)을 알아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대부분 난리가 닥쳐온다면 잔뜩 근심을 품고 피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다. 그러나 선사는 이 난리

를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난리가 나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이 지구의 기상 이변은 말지 않아서 곧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 지도 모른다든 우려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때에 선(禪)을 닦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자제로 난리를 맞이해야 할까. 생사는 본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머리로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막상 죽음이 닥쳐왔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기본에 있어 있을 것이다. 죽음이 닥쳐온다면, 지구의 종말이 다가 온다면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차분하게 마음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인생이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인데, 이 죽음에 마음이 동요된다면 내가 아직도 진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혹 깨닫지 못했다 해도 죽음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 내가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해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생사도 없고, 늘어난다 줄어들고 없는 것이다. 이 기회에 ‘이제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죽음을 맞이하자’ 하면서 의연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여러 가지 법이 멸하는 것이다.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한 학승이 물었다. “다만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과 같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자네의 그 일문(一問)을 허락하겠네.”

師示衆云 心生即種種法生 心滅即種種法滅 你諸人作麼生 僧乃問 只如不生不滅時如何 師云 我許麼者一問

‘心生即種種法生 心滅即種種法滅’은 부처님의 법문이다. 마명보살이 <대승기신론>에서도 이 말을 했다. 조주 스님이 이 법문을 대중에게 설법하면서 대중의 의견은 어떠한가 묻은 것이다. 질문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것은 질문이 ‘적합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 당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다. 눈앞에 무엇이 보여도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없어졌다 해도 없어진 것이 아닌 것이 진실이다. 그러하든 도대체 무엇이 무엇을 생하고 멸하게 한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그 질문 자체만 가지고 말한다면 ‘맞는 말이야, 맞아’하고 긍정할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⑦ 수심요론(修心要論)

‘본래진심’ 지켜야 열반 터득

홍인은 <금강반야경>을 수지하면서 심성의 본원에 철저함을 본지로 삼아 수심(守心), 즉 수본진심(守本真心)의 참학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장하기 위해서 <수심요론(修心要論, 最上乘論, 一乘顯自心論)>을 저술했다. 후에 혜능은 <수심요론>에 대해 ‘홍인대사가 범부를 깨침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심(修心)의 도를 보여준 요론’이라 정의하고, 그 근본 사상은 본래 청정한 일심을 자각하고 일깨우는 수심(守心)에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홍인(大滿弘忍, 601~674)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는 정각(淨覺)의 <능가사자기>는 그의 스승인 현색(玄奘)의 <능가인법지(楞伽人法志)>의 기록을 인용했다. 홍인의 속성은 주(周)씨이고 기주 황매현 출신으로 대업 3년(607) 7세 때 당시 여산에 머무르고 있던 도신을 참문하고 30년 동안 곁에서 모셨다. <역대법보기>에 의하면 현경 5년(660) 황매현 빙무산에 처사가 와서 경사(涼師)로 와달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에 응하지 않았다. 처사가 다시 청했으나 그것마저 고사했기 때문에 처사는 경사에 들어가 홍인에게 의탁품을 보냈다. 홍인의 화하는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선종이 후세에 대성황을 이루는 기초가 여기에서 구축되었다. <능가사자기>에 의하면 홍인은 함양 5년(674) 74세로 입적했다.

홍인의 선은 자성청정심에 계승하는 것을 중요한 안목으로 삼아 정심(定心)에 근거한 즉심즉불의 도리를 고조시킨 점을 볼 수가 있다. 그 저술로 간주되는 <수심요론>(본 제명은 <기주인화상도법성취오도해탈중수심요론(蔚州忍和尚上導凡趣聖悟解脫宗修心要論)> <도법성취오도해탈중수심요론(導凡聖趣悟解脫宗修心要論)>이다)에는 수심(守心)의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다. 텍스트로는 <돈황경어록>(一乘顯自心論)으로 수록 제13 및 <소실일서> 수록본, 스타인본 2669, 3558, 4064 및 페리오본 3434, 3559, 3777, 옹곡대학본(龍谷大學本)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대정신수대장경 제48권에는 <최상승론(最上乘論)>이라는 제명으로 수록돼 있다. 모두 14단락의 주제로 나뉘어 수심(修心)의 도리에 대한 문답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주인화상도법성취오도해탈중수심요론>의 제목을 해석하면 ‘기주의 홍인화상이 범부를 이끌어 성인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해탈의 종지를 깨치도록 말씀해주신 마음을 닦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의 본체는 몸과 마음이 본래부터 청정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분별과 집착할 것이 없는 줄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성이 원만한 청정심(眞正心)이므로 자기의 본사(本師)이기 때문에 사방의 제불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심(自心)이 본래 청정해 불생불멸 줄을 터득하는 방법은 진여불성은 본래 청정하다는 자각해야 한다. 마음이 자기의 본사(本師)이기 때문에 진심(眞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그런데도 범부와 부처의 차별이 있는 것은 진성을 알고 모르는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지니는 마음자세는 본래심을 자각하는 여부에 따른다. 때문에 본래진심(本來眞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열반의 근본이고 깨침의 근본의 가르침이며 심이부경의 으뜸이고 삼세제불의 시조이다. 이에 본래의 진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일체의 차별상을 초월해 조작이 없고 적멸한 무위의 경지인 열반이 터득된다. 이와 같은 수일심(守一心)은 곧 본래진심을 지키는 것으로서 일체경의 근거이고 삼세제불의 개조(開祖)이다.

수일심의 첫걸음은 자기의 본래심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관무량수경>에 의거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며 마음은 전방을 수평으로 향해 16관상법을 통해 본래의 진심을 잃지 않고 늘 상 깨어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본심의 근원이 드러나고 일체의 심의(心義)에 모든 서원이 만족되며 일체행이 원만해 생사의 고통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이에 무기심(無記心)에

빠지지 말고, 도달한 경지에 자만하지 말며, 팔풍(八風)에 흔들리지 말고, 아소심(我所心)을 소멸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신심을 갖추고 조금씩 하되 말며 몸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집중하면 심식(心識)을 관찰해야 한다. 출가자의 본분을 수지하되 일체의 행위에 최선을 근본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일불승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수심요론>에 보이는 수심(守心)의 사상은 도신에게서 전승된 것으로 일심의 본체가 불생임을 알아 그 불성이 동과 정 양변에 흔들리지 않는 평등일미임을 관찰하는 것으로 승화됐다. 이 일심의 진여 곧 불성을 지킨다는 것이 홍인의 선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후에 그 제자 혜능은 <수심요론>에 대해 ‘홍인대사께서 범부를 깨침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심(修心)의 가르침으로 안내해 준 요론’이라 정의하고, 그 근본사상은 수심(守心)에 있다고 천명했다.

■ 한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중국 호북성 황매현의 홍인 대사. (현대불교자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75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7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7개월)	상주권공, 대형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 ◆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 매주 (금) 오후 5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입니다. 기존 판매된 「I·II·III 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래정(來情)·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변 기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재(齋)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동서책」만들 구입·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동서책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련 증보·개정되어 가치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5. 방문자별 각 사정 자동적시 화면처리 / 전체 원터치 기능 / 초보·문외한도 즉시적 활용 성과확보장 / 미리 보고 먼저 판단하며 / 예비성(메모) 또한 백미입니다!



구입·승인·교환 안내 : 051)908-8683 담당 : 진민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